

# 문재인 강원서도 1위...대세 굳히나

## 민주 대선후보 경선...손학규 2위로 올라서

### 文-非文 대결 구도에 결선투표 배제 못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강원지역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3연승을 하며 대세론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문 후보의 득표율이 59.8%(제주)→52.1%(울산)→45.8%(강원)로 낮아지는 분위기여서 향후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28일 오후 원주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경선에서 유효 투표수 6187표(전체 선거인단 1만102명, 투표율 61.3%) 중 2837표를 얻어 45.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제주와 울산에서 모두 5997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강원 경선 결과로 인해 누계 6675표(18.65%)에 그치면서 3위로 밀려났다. 정 후보는 1696표(4.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초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문 후보는 2위와 1만표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 속에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손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던 전망을 뒤로하고 또 한 번의 승리를 챙긴 문 후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계속 1위를 차지,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가 되겠다는 각오다.

이날 캠프 내부의 모바일 투표 독려 문건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 후보는 "이겼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다"면서 "1위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선에서 정권교체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충북, 내달 1일 전북, 2일 인천, 4일 경남, 6일 광주·전남에서 차례로 순회경선을 이어간다.

특히, 충북(3만1000여명)과 전북(9만5000여명), 광주·전남(14만여명)의 선거인단 규모가 상당히 커서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는 이곳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선이 '문 후보 대 비문(비문재인) 후보' 구도로 나타나면서 2위 후보가 나머지 지역에서 문 후보와 격차를 줄여 과반을 지지할 경우,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선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이 28일 오후 원주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정권발표를 마친 뒤 박수로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서 손학규 후보가 2328표(37.6%)로 2위를 차지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고 김두관 후보가 678표(11.0%)로 3위, 정세균 후보가 344표(5.6%)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문 후보는 258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순회투표에서는 132표를 얻어 52표를 얻은 김 후보와 47표를 얻은 문 후보를 압도했으나 모바일투표에서 앞선 문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25~26일 제주, 울산에 이어 강원까지 세 지역 경선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에서 문 후보는 1만9811표(55.3%)를 득표, 나머지 세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서갔다.

2차전까지 총 5287표로 3위에 그쳤던 손 후보는 강원에서 문 후보를 턱 밑까지 따라잡는 선전을 펼치며 누계 7615표(21.3%)로 2위로 올라섰다.

# 민주 이번엔 '이·문 담합' 공방

## 손 "문재인 캠프 내부 문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진상조사 요구

민주통합당 경선이 정상화되자마자 '이·문(이해찬-문재인) 담합' 공방이 전개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후보 측은 28일 '이문담합' 증거라며 전날 공개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 및 운영 지침'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은 문 후보 캠프 경선대책 총괄본부가 지난 24일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다.

가능하면 선거인단 모집활동가 본인이 등록시킨 선거인단에 게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는 선거인단의 성향을 분석해 '우군'과 '비우군'으로 나눠 인원을 파악, 총

괄본부에 보고하라는 것이 골자다.

손 후보 측은 이 문건이 이메일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대표비서실장 등에게 발송됐으며 당 지도부와 문 후보 측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김두관 후보 측도 가세했다. 김 후보 측은 선대위 명의로 낸 성명에서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 없다"며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이를 부인했다. 문 후보 캠프의 이목희

전략기획본부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독려팀은 없다"면서 "에컨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간부나 활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이메일이 전달된 것은 "어떤 실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수신자로) 보낸 것인데 이 자료를 받아봐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실수"라고 말했다.

김현 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 발송한 이메일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야권연대 파기 카드 '만지작'

##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문제 원만한 해결 못해

민주통합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파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야권연대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티타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이 불거진 후 진보당이 이

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해왔다. 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민주당을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직·간접 의사를 밝혀온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진보당이 부정 경선 사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렸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최고위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당장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최고위원단 파기·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은 데다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안대희 前대법관 새누리행 맹비난

## "퇴임 48일만에 화려한 정치적 데뷔" 꼬집어

민주통합당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대선 중앙선대위의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한 데 대해 비난의 화살을 집중했다.

박지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임

로 갈 수 있는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후보가 왜 그러한 인사부에 하지 못하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법계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이 퇴임 48일 만에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하셨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은 대법관의 직위를 정치에

데뷔하기 위한 예비수단으로 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을 위해서라면 신망받는 인사를 너무 쉽게 불초시게로 쓰는 박근혜식 정치에도 연민을 느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 전 대법관이 "박 후보의 가족이라도 감목대상에서 제외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도, 관사도 아닌 소문부재 여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 참모

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 대변인은 "안 전 대법관이 박 후보 친인척·측근비리 의혹을 은폐하는 방패막이용이 아니라면 공천로비 사건과 박덕홍 의원 비리 의혹 사건, 박지만·서창희 부부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 전 대법관이 정치권의 압력에 대선후보 수사에 나서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분이라면 앞선 수재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피아시티 비리자금이 대선자금임을 시사했음에도 수사를 문개는 후배 검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원장 강의 수강신청 '0'명

## 대선 출마설 등 학생들 부담스러워한 듯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올해 2학기에 맡기로 한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에 수강신청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용대원 디지털정보융합학과에 정원 50명으로 개설된 이 강의는 9

월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추가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폐강된다.

해당 강의는 교수가 석·박사과정 학생의 졸업 논문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과목이다.

디지털정보융합학과에서 다른 교수가 개설한 같은 과목에는 2~

4명의 학생이 수강신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원 논문 지도 과목에 수강신청 학생이 없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안원장의 경우 대선 출마설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지난 1학기에 이미 두 과목을 강의해 서울대 의무강의 시간(대학원장의 경우 1주당 3시간 수업 연간 2회)은 모두 채운 상태다.

/연합뉴스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2. 7. 16(월) ~ 2012. 8. 31(금)
- 수업기간: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 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H. 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010-3666-4646**

###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m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 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기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1.경매 배우면서 입찰받으실분!**  
 특수물건/NPL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비/입장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2.매수 입찰 대리**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저낙찰  
 빠른 명도 → 최상의 대출  
 임대 → 매매까지

**3.경매물건에 투자 하실분!**  
 제1순위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년 10~30% 최고의 수익률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csg5000@hanmail.net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액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